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1945-2002*

A Historical Study on the Children's Librari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1945 to 2002

김 지 완 (Jeewan Kim)**
정 연 경 (Yeon-Kyoung Chung)***

목 차

1. 서 론
2. 어린이도서관의 의의 및 현황
3.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전개과정
4.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 분석
5.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2년까지를 중심으로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6년까지는 어린이도서관의 준비기로,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지 못하였다. 둘째, 1977년부터 2002년까지는 어린이도서관의 성장기로,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 시기 어린이도서관은 공공영역보다 주로 민간영역에서 설립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hildren's libraries from 1945 to 2002.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hildren's library is divided into stages as follows. First, the preparation period (after colonial liberation in 1945~1976) is the time when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were started, focusing on children's rooms in public libraries. The children's libraries were not recognized enough to be established. Second, the growing period (1977~2002), was primarily aimed at providing library services to children. In this period, the children's libraries were mainly established in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e public sector.

키워드: 어린이도서관, 공공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Children's Library, Public Children's Library, Children's Small Library, Public Library Children's Room

---

* 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하여 재구성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비상임연구원(kjwlib@naver.com / ISNI 0000 0004 7930 4735)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 ISNI 0000 0000 8261 536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9년 10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95-119,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095

www.kci.go.kr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서관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평등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2003)의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모든 어린이가 나이, 인종, 성별, 종교, 언어, 국적, 문화적 배경, 사회적 지위, 개인적 능력에 상관없이 평등한 조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 및 자료,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IFLA(2001)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지식발견 및 창작물에 대한 희열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어린이의 독서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어린이 도서 및 기타 매체를 진흥시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어린이에게 중요한 사회적 기관인 공공도서관이 국내에 등장한 것은 1920년대이며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등장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어린이도서관은 민간영역이 먼저 설립해 나갔으며 2003년 기적의 도서관을 계기로 전국에 확대되었다. 어린이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한국의 어린이도서관이 민간영역에서부터 설립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환경은 어떠했는지,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은 어떠했는지, 현재의 어린이도서관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어린이 도서관이 언제 출현하였고,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설립되기 이전인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2년까지를 중심으로 어린이도서관의 출현과 성장,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며 전개과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역사적 연구(historical research) 방법을 기본으로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사용하였다. 역사적 연구방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기록, 자료, 문헌을 찾아내고 수집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을 정확히 기술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과정이다(정동열, 조찬식 2007). 역사적 연구방법은 과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이나 연구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불분명할 때 그 관계를 밝

www.kci.go.kr

히는 연구법으로 이들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Powell 1996). 이러한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과거의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다.

문헌연구는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의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 관련 법령, 정책 자료, 기관지, 통계자료, 신문 기사 등을 수집하여 비판과 검증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어린이도서관 발전과정의 문헌연구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어린이도서관 설립 당시의 어린이도서관 환경과 어린이도서관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도서관 설립과 운영,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면담 대상자 선정은 문헌 조사와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어린이도서관 설립자와 운영자,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관련 분야의 지속성을 중심으로 하였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여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관장과 사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 대상자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4명으로부터 면담을 허락받아 이들에게 반 구조화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면담 장소는 면담 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녹취 동의 후에 녹음과 전사를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시기는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 중 한 부분인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2년까지로 하였다. 연구 시기의 설정은 한국 도서관계에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이 있음에도 1970년대 후반 어린이도서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3년 기적의 도서관 이후 어린이도서관이 전국으로 확산하기 전까지 어떠한 움직임과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2006년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39호), 2009년 도서관법[1]을 기준으로 공공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작은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현장에서는 문고,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 모두가 어린이도서관이 아님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명칭에 어린이, 아동, 아이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실태는 당시의 도서관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로 서술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종단연구라는 관점을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의 설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9. 6. 20.] 〈http://www.law.go.kr/main.html.〉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규정은 1963년 도서관법과 이후 도서관법의 개정과 제정에 나타나지 않으며 2006년 전부 개정 된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어린이도서관 규정함. 2009년 도서관법 일부개정에서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 됨.

www.kci.go.kr

사회적 배경과 어린이의 독서환경, 어린이도서관 관련 법령 및 규정, 어린이도서관의 실태 등을 분석하여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의 특성을 밝혔다.

1.3 선행연구

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주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이루어졌고 단행본과 도서관 관계지의 간행물 등에 방대한 수의 의견, 보고, 기사가 발표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도서관 관계자가 쓴 실무에 관한 내용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어린이도서관의 발전에 어떠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연구한 문헌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赤星隆子 2007). 그래서 도서관 발전과정에서 초기 어린이도서관의 시작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어린이도서관 성립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김세익(1992), 윤금선(2009) 등이 경성도서관의 어린이실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 있었다. Lopez(1976), Thomas(1982), Jagusch(1990) 등은 초기 공공도서관의 형성과정에서 최초의 어린이열람실 설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어린이의 연령 제한, 어린이와 청소년 대출, 어린이용 도서 구비와 서가, 테이블의 설치, 어린이실과 어린이 독서 구역 지정 등의 어린이실 설치를 청소년도서관, 어린이도서관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날의 어린이도서관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 도서관사 연구도 살펴보았는데 공공도서관사(이춘희 1989; 김포옥 1991; 이연옥 2001), 학교도서관사(김종성 2000), 점자도서관사(육근해 2008)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있었으나 어린이도서관사는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김종성 2011). 어린이도서관 발전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赤星隆子(2007), 坂内夏子(2011), Kevane과 Sundstrom(2014) 등은 도서관정책과 제도의 확립,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 개인과 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등이 도서관의 설립과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관, 어린이의 독서와 교육관, 어린이문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이상의 어린이도서관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어린이도서관이 언제, 어떻게, 왜 설립되었는지, 어린이도서관의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미래의 발전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어린이도서관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2. 어린이도서관의 의의 및 현황

2.1 어린이도서관의 개념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국내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주로 13세 미만의 이

www.kci.go.kr

용자 즉,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주 이용자로 한 도서관으로 어린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어린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문헌정보학 용어사전(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는 어린이도서관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어린이부서(children's department)와 어린이실(children's room)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어린이부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장서 및 서비스를 헌신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의 한 부분, 어린이와 함께하고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한 부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분관에서 어린이 서비스와 어린이도서를 위해 운영하는 열람실로 어린이실을 정의하고 있다(ALA 1983).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2006년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제2조 4항에서 문고,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 등과 함께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하고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효정(2000)은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가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이를 분석, 정리 소개함으로써 어린이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봉사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명옥(2007)은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좁은 의미로는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과 어린이 코너, 어린이 문고, 초등학교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어린이도서관은 주로 13세 미만의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주 이용자로 하고 어린이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이의 독서습관 형성 및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2 어린이도서관의 유형

국내에서 어린이(아동)도서관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에 등장하였고 공공도서관의 아동실, 아동문고, 어린이실, 어린이열람실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2006년 도서관법에서 어린이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전부터 국내에는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먼저 도서관법(2006) 제2조에는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라 하여 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의 하나로 포함하였으나 어린이도서관의 종류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형태에 따라 독립적인 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초등학교 소속 도서관, 사립 어린이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기타 대학이나 국회도서관

www.kci.go.kr

등에서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으로 나누고 있다.[2)]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일반적 기준인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공립 및 사립 어린이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립 어린이도서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사립 어린이도서관은 개인, 단체 및 법인이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도서관을 포함한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을 시설 및 자료의 기준(대통령령 제21739호)에 따라 구분하면 공공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일부 개정된 도서관법과 2012년 제정된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작은도서관이 규정되었음에도 도서관 현장에서는 이전부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해 왔고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린이 전용 아동문고, 아동도서관, 어린이문고, 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은 공공도서관 내에 어린이를 위하여 설치된 독립된 공간으로 성인용 공간과 구분하고 입구를 달리한 어린이 열람공간이다.[3)] 도서관에 따라 아동실, 아동열람실, 아동자료실, 어린이실, 어린이열람실, 어린이자료실, 어린이코너, 모자열람실 등의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로 정하였다.

이상의 어린이도서관 구분은 설립 및 운영 주체, 시설 및 자료 규모, 단독 건물 유무, 서비스 주체에 따라 나누어지며 국립어린이도서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초등학교도서관, 공립 및 사립 공공어린이도서관, 공립 및 사립 어린이작은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의 범위에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설립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으로 정하였고 시설 및 자료 규모에 따라 공공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3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현황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2017년을 기준으로 1,042개관이 있다.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도서관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250개관, 서울 160개관, 경남과 전남이 각 67개관 순으로 경기도 도서관 수가 가장 많으며 도서관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시로 5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은 전국 1,042개관 공공도서관 중 880개실(약 84.5%)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공공어린이도서관은 95개관(약 9.1%)이 있다. 공공어린이도서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수도권에 58개관이 집중되어 운영 중이며,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경상권 19개관,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충청권 7개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라권 7개관, 제주도 2개관, 강원도 2개관으로 나타났다. 공공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교육청 1개관,

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편람 편찬위원회(편). 2009.『도서관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편). 2003.『한국도서관기준(2003년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www.kci.go.kr

지방자치단체 92개관, 사립 2개관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것이 많았으며 운영은 직영 운영이 54개관, 위탁 운영은 41개관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서울지역 공공어린이도서관은 25개관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1개관을 제외한 24개관 모두를 위탁 운영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위탁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4)]

그리고 어린이작은도서관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어린이작은도서관의 통계가 없어 정확히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작은도서관 통계에 어린이작은도서관을 분리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어린이작은도서관의 명단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작은도서관 통계조사는 작은도서관진흥법(2012.02.17. 제정) 제12조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며 여기서 확보한 작은도서관 명단(2017년 기준, 6,058개관)을 기반으로 도서관명의 중복체크 후 어린이문고,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작은도서관, 아동도서관, 아동문고, 아이문고라는 도서관명을 1차 확인하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5)] (사)어린이도서연구회[6)] 등의 어린이도서관 목록과 2차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작은도서관의 홈페이지와 카페를 방문하여 명단의 누락과 오류를 점검하여 어린이작은도서관 234개관(3.9%)의 운영을 확인하였다.

3.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전개과정

역사연구에서 시대구분은 혼돈상태에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순서를 매기고 정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체계이다. 시대구분의 기준을 보면 먼저 연대순에 따르는 시대구분으로 편의상 연대순에 따라 보통 10년 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하나는 일반사적인 시대구분으로 이 경우에는 대체로 정치 사회적인 변동이나 역대 정권을 기준으로 일반인에게 친숙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 발달단계에 따른 시대구분으로 편의적인 연대순이나 일반사적인 시대구분에 따라서 시대구분을 실시한 후에 대상의 상대적 발달단계에 따라 시기의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이다(오혁진 2010). 이에 따라 연대순 시대구분과 일반사적인 시대구분을 혼합하여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전개과정을 기술하였다.

3.1 1945년 해방 이후~1950년대

3.1.1 사회적 변화와 어린이의 독서환경

1945년 해방과 1950년 전쟁을 겪으면서 어린이들은 혼란스러운 정세와 전후 복구사업 속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기 어려웠고 어린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시설은 거의 없었다. 이에 1957년 한국동화작가협회에서 어린이헌장의 기초 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35주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보건사회부, 문교부, 법무부, 내무부

4)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online] [cited 2019. 6. 20.] 〈https://www.libsta.go.kr/〉
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online] [cited 2019. 8. 10.] 〈http://cafe.daum.net/ilovei/〉
6) (사)어린이도서연구회. [online] [cited 2019. 8. 5.] 〈http://www.childbook.org/new3/intro.html?html=intro2.html〉

www.kci.go.kr

장관 등의 공동명의로 어린이헌장을 제정 선포[7]하였다. 어린이헌장의 제정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전쟁, 경제적 궁핍 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에 대한 정부와 어른들의 반성으로 어린이의 보호와 인권 존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출판 활동을 중지했던 출판사들은 해방 이후 다시 창업했으나 활자, 인쇄기, 용지 등의 부족으로 출판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출판계와 서점계는 일시 중단되었고 소수의 출판사가 전쟁 중에 주로 교재, 참고서, 만화류의 책들을 펴내는 상태였다. 1950년대는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어린이 책의 출판이 매우 부족하였고 주로 만화를 읽고 있어[8]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시기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전에 이념의 대립과 전쟁, 분단으로 국가는 위기에 처했으며 국민은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사회시설은 매우 적었으며 열악한 출판환경으로 질 좋은 아동문학의 출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좋지 못한 시기였다.

3.1.2 도서관의 변화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실태

해방 직후 남한의 공공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을 포함하여 17개관이 있었다. 1950년 전쟁으로 도서관 시설이 파괴되고 장서가 소실되면서 기본적인 업무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1959년에 18개관으로 도서관 설립은 매우 빈약하였다(김포옥 1991). 이연옥(2001)은 이 시기를 서구식 도서관제도와 사서양성제도가 확립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전문조직이 만들어지는 도서관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로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인들의 도서관 설립 운동과 독서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정국과 경제적 빈곤,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도서관을 설립해 나가는 것도 힘겨운 상태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불가능했다.

해방 이후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실태를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1947년 국립도서관은 아동실을 개설하여 초등학교 아동 및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1948년에는 여름방학 기간에 어린이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개관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경하기도[9]하였다. 국립도서관 아동실은 1950년 전쟁으로 폐실 된 후 1954년 다시 문을 열었고 1955년 국립도서관 아동실 책장에는 철망을 쳐놓았으며 강소천소년문학집, 현대한국소년문학선집, 세계명작소년문학전집 등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정도였다.[10] 이후 국립도서관 아동실은 개가제 열람을 실시하여 조무원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게

7) 어린이헌장 기초 동화작가협회서. 1957.『경향신문』. 3월 3일. 제7면.
8) 아이의 사생활. 1955.『동아일보』. 12월 12일. 제4면.
9) 국립도서관 아동실 설치. 1947.『경향신문』. 7월 4일. 제2면.
아동문고 시간 8월부터 변경. 1948.『경향신문』. 7월 31일. 제2면.
10) 아이의 생활문화. 1955.『동아일보』. 12월 12일. 제4면.

www.kci.go.kr

하였다.[11] 1950년대 말까지 서울 시내에는 국립도서관에 1개의 아동실이 설치[12]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은 극히 적었다.

그러므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를 정리하면 해방과 전쟁으로 사회는 혼란스럽고 힘겨운 상황에 있어 어린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좋지 못하였으며 국립도서관에 아동실을 설치하였고 아동도서실, 어린이도서실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면서 운영되었다.

3.2 1960년대~1970년대

3.2.1 사회적 변화와 어린이의 독서환경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 시민사회는 군부독재의 정치지배에 대항하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독재정권 아래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자본주의가 가속화되었고 베이비붐과 같은 급속한 인구증가 현상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어 어린이들은 입시경쟁과 과중한 학습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1950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어린이들은 전집류, 위인전, 외국 아동문학 번역 작품과 만화 등을 주로 읽고[13] 있었으며 1970년대 초반의 어린이(초등학교 4학년-5학년)의 독서량은 일반도서는 월평균 5권 이내, 만화는 하루에 5권을 읽고 있는 상황이었다.[14]

어린이 책은 1961년 문교부 산하에 우량아동도서선정위원회를 발족하여 교과용 도서 및 참고서를 제외한 아동도서에 '교육부 선정 우량도서'라는 표시를 붙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의 학급도서 설치 운동이 펼쳐지면서 전집과 기획 출판물의 증가로 화려한 고가의 전집류와 함께 방문판매를 통한 할부판매가 등장하였다. 이후 1970년 '출판 진흥의 해'를 전후하여 부담 없는 가격의 문고가 탄생하였고 1976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어린이 독서주간 제정, 국제도서전 참여 등을 계기로 어린이 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1977년 창작과비평사의 '창비아동문고'를 시작으로 어린이 책의 단행본 출판이 시작되었다(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이 어린이 책의 발행종수가 1961년에 135종(총 발행 종수의 5.9%)에서 1969년에는 268종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1977년에는 2,155종(총 발행 종수의 15%)으로 1960년대 초반보다 약 16배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어린이 책의 발행 부수는 1965년부터 집계가 시작되었는데, 1965년에 약 28만 부(총 발행 부수의 2.3%)에서 1972년에는 약 100만 부를 넘기고 1975년에는 약 420만 부(총 발행 부

11) 어른 세계에 못지않게. 1957.『경향신문』. 6월 17일. 제3면.
어린이도서관에 꼬마들 운집 독서주간 제1일의 국립도서관. 1957.『경향신문』. 10월 21일. 제3면.
12) 성황이룬 어린이도서관. 1959.『동아일보』. 7월 28일. 제3면.
13) 저속한 만화책 너무 많다. 1962.『경향신문』. 10월 5일. 제5면.
동심을 좀 먹는 만화공해. 1970.『경향신문』. 11월 28일. 제5면.
14) 중앙도서관 발표, 독서실태 성인 40%가 외면. 1972.『경향신문』. 2월 15일. 제5면.

www.kci.go.kr

수의 17%)로 어린이 책이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15]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국가 주도 근대화 정책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어촌 인구의 도시 이주 문제, 시민사회 내의 계급 갈등, 경쟁 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린이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은 학급문고 설치 운동, 어린이 독서주간 제정, 어린이도서전 등을 개최하였고 어린이 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어린이 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3.2.2 도서관의 변화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실태

도서관법이 제정된 1963년에 전국의 공공도서관 수는 27개관이었으며 이후 1969년에 61개관, 1979년에는 118개관으로 공공도서관의 증가가 더딘 상황에서 어린이실의 설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을 개관할 때에 어린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린이실의 설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어린이실 운영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의 변화나 진전은 없었다.[16] 공공도서관의 확충은 더뎠으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마을문고 설립 운동에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약하였다.

이 시기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실의 설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70년대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설치 실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은 1974년 7개관이 있었고 이중 국립도서관 아현분관, 어린이회관, 서울시립종로도서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등 4곳에만 어린이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서울의 초등학교 어린이 수는 844,400여 명으로 어린이실 1좌석당 어린이 수는 3,400명으로 어린이의 도서관 이용환경과 독서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17] 1977년 서울시립정독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어린이실이 설치되어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은 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서울시립정독도서관 어린이실의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좌석 수 120석, 어린이도서 약 4,900여 권과 어린이신문과 잡지를 갖추었으며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료로 이용하였다.[18]

이상을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설치에 대한 도서관법의 규정은 있었으나 도서관 현장의 어린이실 설치는 부족했으며 도서관 내의 열람 중심으로 무료로 이용하였고 관외 대출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이용자로 초등학생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있어 영유아의 어린이실 접근과 이용은 보편적이고 일반화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어린이실의 설치는 더뎠으며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3.2.3 어린이도서관의 실태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1960년대에는 없었

15) 대한출판문화협회. 1961; 1979.『한국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16) 한국도서관협회. 1963. 도서관법 전문.『도협월보』, 4(7): 2-5.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1965. 도서관법 시행령 전문.『도협월보』, 6(2): 2-3.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7) 푸른 5월을 밝고 알찬 표정은 어디에. 1974.『경향신문』. 5월 3일. 제7면.
18) 화동 정독도서관에 어린이전용열람실. 1977.『동아일보』. 9월 14일. 제6면.

www.kci.go.kr

으며 1970년대 말에 개인과 공공에 의하여 극히 적은 수가 설립되었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 어린이도서관으로 서울 잠실어린이도서관과 대구 유진어린이도서관이 있었고 공립 어린이도서관으로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현 서울특별시 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이하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있었다.

잠실어린이도서관[19]은 1977년 12월 17일 채규철과 유정희에 의해 서울시 강남구 잠실동 시영아파트 55동 15호에서 시작되었다.[20] 잠실어린이도서관의 의미는 개인에 의하여 설립된 작은 규모의 문고형 어린이도서관의 시작으로 어린이를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과 어린이를 위한 공간, 자료, 사서가 있었다는 것, 지역의 어린이에게 도서관을 공개하고 열람과 대출, 독서회 등을 통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유진어린이도서관[21]은 1978년 12월 대구시 대명동에 이영상이 개관하였으며 개관 초기 연면적은 303평, 좌석 수는 200석, 사서 2명, 행정직 2명, 기타 5명 등 총 9명의 인력으로 운영하였다. 장서는 약 4,986권을 소장하고 있었고 연간 이용자는 약 6,000명이었으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였고 도서 대출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어린이도서관은 개관 이후 좌석 수가 차차 줄어들어 80석으로, 인력은 2명으로 감축되는 등 도서관 운영이 나빠져 1986년 이후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 통계를 제출하지 않고 폐관한 것으로 보인다.[22]

한편 1976년 UN이 제31회 총회에서 1959년의 어린이권리선언 채택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의 관계 기관이 아동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활동과 시책을 행하도록 요청하였다. 한국은 1978년 세계 아동의 해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개시하였고 서울시립아동병원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수하여 1979년 최초의 공립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23]을 개관하였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조직은 서무과, 사서과, 열람과의 3과 41명으로 구성하였고 시설은 대지 2,000평, 건물 914평으로 3층 건물 1동, 2층 건물 1동, 1층 건물 2동에 유년실, 제1, 제2의 열람실, 반공전시실, 시청각실, 교육상담실, 이야기실, 독서상담실, 세미나실, 서고, 휴게실 등을 갖추었다. 장서는 이웃한 서울시립종로도서관의 아동열람실 자료 7천여 권을 이양 받은 것을 기본으로 약 22,000여 권으로 시작하였다.[24]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은 5세~12세의 어린이, 중학교 1・2학년 여학생, 학부모

19) 동심에 지혜와 꿈을 심는다. 1978.『동아일보』. 4월 11일. 제6면.
세계 어린이의 해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8): 남모르게 펴온 아동문고. 1979.『동아일보』. 3월 22일. 제5면.
20) 시멘트 밀림 아파트촌에 미니 아동도서관. 1979.『경향신문』 1월 1일. 제7면.
21) 새싹회 장한 어머니상 받은 이영상 여사. 1978.『동아일보』. 12월 22일. 제5면.
22) 한국도서관협회. 1979; 1986.『한국도서관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3) 사직 시립아동병원 어린이도서관으로. 1978.『경향신문』. 11월 9일. 제7면.
세계 아동의 해의 참뜻. 1979.『경향신문』. 1월 6일. 제2면.
세계 아동의 해를 뜻있게. 1979.『동아일보』. 1월 5일. 제4면.
24)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1980.『종로도서관 60년사: 1920-1980』.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www.kci.go.kr

및 교사로 하였다. 열람료는 무료였고 개가제 자유 열람을 실시하였고 방학 프로그램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독서교실 수료자를 중심으로 독서회를 운영하였다.[25]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유아실과 어린이실의 분리, 교원을 위한 자료실 운영, 취약지구의 어린이집, 보육원 등 특수기관에 순회문고 운영, 계간인『독서교육』과 연간인『어린이와 독서』를 발간하여 서울시내 초등학교 및 유관기관, 전국의 공공도서관 배부 등 어린이 독서교육과 어린이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므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정리하면 이 시기에는 국가의 통제 아래 제1차~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어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시민사회는 군부독재의 정치지배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는 어려웠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어린이들은 만화, 전집, 기획물 등을 읽고 있었으며 어린이의 열악한 독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학급문고 설치 운동, 도서관계와 출판계는 어린이 독서주간, 어린이 독서헌장 제정, 어린이 도서전 개최 등을 통하여 어린이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양서 출판을 장려하였다. 그리고 도서관법이 1963년 제정되면서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되었으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었으며 개인과 공공에 의하여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3.3 1980년대~2002년

3.3.1 사회적 변화와 어린이의 독서환경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사회변화가 많은 시기로 1987년 후반 이루어진 정치적 민주화와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김수철 2002). 1990년대에 들어 사회운동 세력들은 점차 정치 담론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현실 세계에 관심을 가졌고 이들이 학부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과 어린이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 어린이의 독서환경

어린이의 독서환경은 1950년대부터 문제로 여겨지던 불량만화 문제가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고, 1970년대 등장한 텔레비전이 1980년대에 컬러텔레비전으로 진화하면서 더욱 열악해졌다. 1980년대 중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의 54%가 하루 2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였고 한 해에 6천여 종, 1천만 권의 만화가 출판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에게 유익한 만화는 5% 정도에 불과하였다.[26]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어린이들은 괴기 공포류 소설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고 학교도서실 및 학급문고의 이용은 저조한 상황이었다.[27] 어린이의 한 학기 동안 독서량도 1993년에 32.7권에서 1999년에 23.3권, 2002년에는 20.5권에 머물렀다.[28]

어린이 책의 출판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25)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1980.『어린이와 독서』. 서울: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26) 어린이 독서습관 어떻게 기르나. 1986.『동아일보』. 9월 29일. 제6면.
27) 어린이 독서 毒書 많다. 1991.『경향신문』. 12월 26일. 제23면.

www.kci.go.kr

주로 전집류 중심이었는데 1977년 창비아동문고를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전집에서 벗어나 전 주제 분야에 걸쳐 어린이용 도서가 개발되었다. 또한 유아용 단행본 그림책의 기획 및 출간 등이 이어지면서 연령별 세분화도 진행되어 어린이 책의 선택이 넓어졌다. 이처럼 어린이 책 출판이 단행본으로 변화하면서 낱권 판매가 가능해졌고 전집 판매가 중심이었던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1979년 종로서적을 시작으로 1980년대 대형서점의 등장은 문화공간으로 서점이 변화하면서 독자층이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1987년 이후 사회과학 전문출판사와 1990년대 후반 성인물 중견 출판사들이 어린이 책 출판에 뛰어들었고 어린이 책 전문출판사도 등장하면서 어린이 책의 양적, 질적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

이를 반영하듯이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어린이 책의 발행 종수와 발행 부수 현황을 보면 1980년에는 어린이 책이 3,494종(총 발행 종수의 16.6%), 약 662만 부(총 발행 부수의 10.9%)였고 이후 약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1999년에 3,399종(총 발행 종수의 13.1%), 약 1,384만 부(총 발행 부수의 12.3%)였으며 2002년에는 6,103종(총 발행 종수의 16.9%), 약 2,000만 부(총 발행 부수의 17.0%)로 어린이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29]

이러한 어린이 책의 성장은 1990년대 중반 어린이 전문서점과 어린이 책 전문 유통회사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1984년 가을글방[30]을 시작으로 1990년 초방[31]에 이어 1997년 동화나라까지 1999년에는 전국에 약 70여 개의 어린이 전문서점이 운영되었다.[32] 이 서점들은 어린이 책에 대한 열정과 문화운동 차원으로 개점하였으며 책 판매 외에도 독서토론, 글쓰기, 인형극, 연극, 전시회, 문화유적답사, 자연탐사, 학부모를 위한 독서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였다.[33] 그리고 어린이 책 전문서점의 등장과 함께 1993년 서당, 좋은 책 등 어린이 책 전문 유통회사도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어린이 책 관련분야의 성장으로 어린이 책에 대한 시민사회와 교사, 학부모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와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2)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의 등장

어린이 책의 성장과 함께 어린이 책, 독서, 교육에 관심이 높아져 어린이 독서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등장하였는데 1980년 6월 어린이 책에 대한 양서의 선별과 문제점 분석을 위해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출범하였다.[34] 1980년대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회원은 대부분 초·중등 교사였으며 1988년 전국교직원협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설립되어 이들은 전교조로 옮겨갔다.

---

28) 한국출판연구소, 1993; 1999; 2002.『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9) 대한출판문화협회. 1980; 1990; 2003.『한국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30) 서울 반포에 어린이전문서점. 1984.『동아일보』. 5월 7일. 제7면.
31) 조기교육 높아 잠재수요 커.『경향신문』. 2월 20일. 제19면.
전문서점 크게 늘어. 1991.『동아일보』. 10월 1일. 제10면.
어린이전문서점 꾸민 신경숙씨. 1991.『한겨레』. 10월 10일. 제8면.
32) 꿈꾸는 아이들 그들만의 공간 보석처럼 빛나. 1999.『동아일보』. 5월 1일. 제29면.
33) 애들아, 그곳에 가서 꿈을 읽어라. 1998.『경향신문』. 5월 1일. 제10면.

www.kci.go.kr

이후 어린이도서연구회는 1990년대에 들어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책에 대한 대중강연을 시작하면서 학부모 회원들로 대체되었다. 학부모 회원들은 1993년 부평지역에서 동화읽는어른모임을 만들었고 이 모임은 200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100여개가 넘게 되었다.[35] 어린이도서연구회는 1995년부터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권장도서목록 배포와 낙도・벽지 학교와 학교도서실 및 학급문고 살리는 좋은 책 보내기 운동 등을 실시하였고 1999년에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와 교사를 위한 교육・워크숍도 진행하였다.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들은 지역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와 어린이 책 문화 행사로 인형극, 연극, 빛그림(슬라이드) 이야기, 옛이야기 들려주기, 노래극 등을 직접 해나갔으며 스스로 주체가 되어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시민사회의 성장, 어린이 책 관련분야의 성장, 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 고조,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 등장 등으로 어린이, 어린이 책, 어린이 독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 결성된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이하 책사회)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과 도서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대하였다. 책사회는 2003년 기적의 도서관 설립을 주도하면서 민간의 어린이도서관 운영 경험과 각 시민사회의 역량을 묶어내서 어린이 전문 도서관 건립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후 어린이도서관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3.3.2 도서관의 변화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실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1980년대는 평생교육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확충되었고 1990년대는 정권 변화, 도서관 업무의 문화부 이관, 지방자치제도 시행, 금융 외환위기 등으로 모든 분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어 사회 제반의 구조조정과 공공영역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1) 도서관 관련법의 변화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24년 만인 1987년에 개정되고 1991년 도서관진흥법의 제정 공포에도 공공도서관의 소속 부처가 일원화되지 못하였으며 도서관장의 사서직 임명과 구조조정이 맞물려 공공도서관의 명칭 변경시도와 저지 등으로 도서관계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34) (사)어린이도서연구회. [online] [cited 2019. 8. 10.] 〈http://www.childbook.org/new3/file/2000%EB%85%84%EC%8B%AC%ED%8F%AC%EC%A7%80%EC%97%84.pdf〉

35) (사)어린이도서연구회. [online] [cited 2019. 8. 10.] 〈http://childbook.org/new3/file/2005%EB%85%84_25%EC%A3%BC%EB%85%84_%EA%B8%B0%EB%85%90%EC%8B%9D_%EB%B0%8F_%EC%A0%95%EA%B8%B0%EC%84%B8%EB%AF%B8%EB%82%98_%EC%96%B4%EB%A6%B0%EC%9D%B4%EC%B1%85%EB%AC%B8%ED%99%94%EC%9A%B4%EB%8F%99_%EC%A0%90%EA%B2%80%EA%B3%BC_%EB%B0%A9%ED%96%A5%EB%AA%A8%EC%83%89.pdf〉

www.kci.go.kr

문고의 규정과 설치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도서관 기준에 미달하나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문고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도서관 시설과 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공립 문고와 사립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 도서관계는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도서관 확충과 내실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설치 이행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는 한국도서관기준의 어린이와 어린이실에 대한 용어와 규정을 통하여 좀 더 알 수 있다.

한국도서관기준[36]에는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용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어린이라는 용어 대신 청소년이 사용되었고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시설 부분에서 어린이 전용 도서실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실의 크기는 건물 연면적의 5~15%, 어린이 자료는 전체자료의 20~30%로 구성, 인사와 조직 부분에서 어린이 전문직원을 두고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며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도서관기준은 1963년의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에 어린이 부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비하면 발전한 형태이나 도서관계의 어린이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 확대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실태

공공도서관은 1981년 120개관에서 1990년에는 231개관으로 증가하였다.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2년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설치율은 전국 공공도서관 273개관 중 137개관(50%) 정도였으나 1999년에는 전국 공공도서관 400개관 중 332개관에 어린이실이 설치되어 83%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장서 수는 1990년대 초반 666,451권에서 1999년에 3,379,907권으로 약 5배로 늘어났으며, 대출 권수는 1990년대 초반 957,490권에서 1999년에는 9,140,621권으로 약 9.5배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도 1990년대 초반 1,905,103명에서 1999년에는 11,987,617명으로 약 6.3배로 증가하였다.[37]

이처럼 1990년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설치, 장서 수, 대출 권수, 이용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았으며 겨울, 여름방학 기간에 이루어지는 독서교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38]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어린이 책의 성장과 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개인과 학부모, 사회적으로 높아지면서 도서관 설립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였고 개인과 단체, 법인이 작은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3.3.3 어린이도서관의 실태

1960년대와 1970년대 마을문고 운동에 이어 1970년대 말 시작된 양서협동조합운동은 1980년대의 노동도서원, 주민도서실, 어린이도서연

36)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편). 1981.『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37) 한국도서관협회. 1993; 2000.『한국도서관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38) 피면담자 A. 2016.『2016년 10월 6일 서울 방배동에서 면담』.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

www.kci.go.kr

구회 등으로 이어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 작은도서관운동, 어린이도서관운동 등으로 이어졌다(이연옥 2005; 전영순 2003).

1990년대에 들어서도 공공도서관은 여전히 부족하여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민 스스로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을 세우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문고 설치 권장과 때를 같이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는 공간은 아파트단지, 교회, 마을회관, 복지회관, 병원, 군부대, 파출소, 노인정 등 열악한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이연옥 2001).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욕구와 갈증을 해소해 주는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운동 속에서 1990년대 또 다른 한 흐름으로 생활권 중심에서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문고 형태인 작은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 공공어린이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공공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없었으며 2001년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이 설립한 부천의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1개관이 설립되는 것에 그쳤다. 1979년 개관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유일한 공립 어린이도서관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운영되었으며 이후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 서비스의 모델이 되었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개관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도서관 운영은 안정적인 상태였고 어린이 연령과 발달에 따른 열람실의 공간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 서비스를 이끌어나갔으며[39] 2000년대에 어린이도서관이 전국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도서관 운영의 자료와 경험을 이들에게 제공하였다.[40]

(2) 어린이작은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어린이도서관은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설립하였는데 이들이 설립한 어린이작은도서관 20여개관과 법인이 설립한 인표어린이도서관 22개관을 포함하여 약 40여개관이 있었다.

먼저 인표어린이도서관[41]은 (재)에스콰이어학술문화재단(현 (재)이인표재단)이 어린이문화운동 차원에서 시작한 어린이도서관으로 문화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의 어린이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주로 복지관, 낙도, 공단, 동포거주지 등에 주로 설립하였다. 1990년 5월 4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제1호 북부인표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국내에 14개관, 중국에 6개관, 러시아에 1개관, 카자흐스탄에 1개관 등 총 22개관의 인표어린이도서관이 세워졌다.

인표어린이도서관의 공간은 도서관이 세워지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고 사서를 채용하여 운영하게 하였고, 인표어린이도서관 본부에서는 책의 수서, 정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였고 도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

39) 피면담자 A. 2016.『2016년 10월 6일 서울 방배동에서 면담』.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
40) 피면담자 B. 2016.『2016년 10월 20일 서울 사직동에서 면담』. 전 공공어린이도서관 관장.
41) 이인표 에스콰이어 회장 인표어린이도서관 개관식. 1990.『경향신문』. 5월 7일. 제12면.
중국, 러에 어린이도서관 열어. 1993.『동아일보』. 11월 28일. 제6면.

www.kci.go.kr

면서 분관체제로 관리와 운영을 하였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서교육 워크숍도 진행하였다.[42] 인표어린이도서관은 1990년대 척박한 도서관 환경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세우는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설립자의 사망과 모기업의 어려움으로 도서관운영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표어린이도서관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라졌다.

이 외에도 1982년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설립한 마을어린이도서관과 1990년대 설립된 어린이작은도서관 20여개관[43]이 있었는데 공공도서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운동의 성격도 함께 있었다. 어린이작은도서관은 개인의 집 방 한 칸이나 거실, 교회 내 공간 또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문을 열었다. 어린이 책과 비디오 등을 비치하고,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열람과 대출을 시행하고, 연회비와 월 이용료를 받는 곳도 있었으며,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책과 독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처럼 민간영역에서 어린이작은도서관이 설립되고 있었으나 공공은 도서관계의 내부 문제로 민간영역의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대한 욕구와 움직임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정리하면 1987년 민주화,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등 사회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어린이 책은 주제 다양화, 단행본 출판, 연령 세분화 등이 되었고 어린이 책 전문작가, 어린이 책 전문출판사, 어린이 전문서점, 어린이 책 전문유통업체,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 등이 등장하여 어린이 책이 성장할 수 있었고 어린이의 독서환경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도서관계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공공도서관의 확충과 발전에 힘을 기울이던 시기였으며 1997년을 전후하여 도서관 구조조정, 민간위탁, 명칭변경 등의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 어린이도서관 설립은 저조하였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는 1960~70년대의 마을문고와 1980년대 노동도서원, 주민도서실 등을 거쳐 1990년대에는 작은도서관을 건립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작은도서관이 설립되었다. 이들 어린이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1998년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를 결성했으며 2000년대 초반의 공공어린이도서관 설립에 참여하였다.

4.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 분석

지금까지 1945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1945년

42) 피면담자 C. 2016.『2016년 7월 7일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 면담』. 전 인표어린이도서관 본부 사서, 전 공공어린이도서관 관장, 현 어린이작은도서관 관장.
피면담자 D. 2017.『2017년 9월 18일 서울 상계동에서 면담』. 전 인표어린이도서관 사서, 공공어린이도서관 관장.

43) 아이들이 좋고 책이 좋았죠. 1998.『경향신문』. 5월 1일. 제15면.

www.kci.go.kr

해방 이후부터 1976년까지는 어린이도서관의 준비기로 어린이도서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미약하여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지 못한 시기로 보았다. 1977년부터 2002년까지는 어린이도서관의 성장기로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 등장하였으며 개인 및 단체, 공공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기로 보았다. 각 시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어린이도서관의 준비기(1945년 해방 이후~1976년)

이 시기는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사회적으로 혼란하였으며 1960년대~1970년대에 실시된 국가 주도 근대화 정책과 시민사회 억압정책은 오히려 시민사회의 형성을 가져와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자본주의가 가속화되고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와 베이비붐과 같은 인구증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고 교육열이 팽창하면서 어린이들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 처해있어 독자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어린이 책 출판은 교과서, 참고서, 만화, 전집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의 독서 자료는 다양하지 못하였고 어린이의 독서량도 저조하였다.

한편 도서관계는 해방 직후부터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와 전문인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사회적 혼란과 전쟁으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 시기 도서관계의 오랜 노력 끝에 도서관의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도서관법이 1963년에 제정되었고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때 어린이 부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과 1965년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6호)의 공공도서관 시설기준에 기준 인구수 2만 명 이상에서 4만 명 미만, 면적 160㎡ 기준으로 20석의 아동열람실의 좌석 수를 제시하는 수준에 있어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에 도서관법은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어린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독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독서헌장 제정, 어린이 독서주간 제정, 어린이도서전 개최 등의 다양한 장려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립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실을 설치하고 열람서비스와 독서교실을 실시하여 어린이 독서를 고취하는 등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어린이도서관이 성립될 수 있는 기초가 준비되고 있었다.

4.2 어린이도서관의 성장기(1977년~2002년)

4.2.1 어린이도서관 설립의 사회적 환경조성

어린이도서관의 성장기인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7년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설립되었고 정치적인 커다란 이슈보다는 일상사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사회 전반의 독서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였다.

어린이의 독서환경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1977년 창작과 비평사의 창비아동문고 출판을 시작

www.kci.go.kr

으로 전집 중심에서 벗어나 단행본으로 변화하였고, 어린이 독자 연령도 세분되었다. 1979년 대형서점이 등장하면서 전집 판매에서 낱권으로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되었다. 이러한 출판계와 서점계의 변화는 1990년대로 이어져 어린이 책 전문출판사, 어린이 책 전문서점, 어린이 책 전문유통업체 등이 활성화되었고, 사회과학출판사와 중견출판사의 어린이 책 출판 참여로 어린이 책이 성장하여 읽을 자료가 다양해졌다. 또한 1980년 어린이도서연구회, 1993년 동화읽는어른모임, 2001년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등의 단체가 등장하여 어린이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 책과 독서문화운동을 확대해나갔으며 어린이도서관 설립에도 참여하였다. 이 시기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화, 어린이 독서와 교육에 대한 관심고조, 어린이 책의 성장 등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한편 1963년 제정된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때 어린이 부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의 설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1987년 개정된 도서관법, 1991년 제정된 도서관진흥법,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981년 만들어진 한국도서관기준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의 규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도서관기준에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에 대한 관련 기준으로 청소년 독서교육과 여가선용, 어린이 전문직원 배치와 전문성 인정, 어린이용 자료 구성비율, 아동전용 도서실 설치, 아동열람실 면적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계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장기의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정부와 도서관계, 도서관법의 영향은 적었으며 도서관 외부의 민간영역에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을 자각한 개인과 단체, 법인에 의하여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어 성장하고 있었다.

4.2.2 민간 어린이도서관의 시기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공공영역보다는 주로 민간영역의 참여가 많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이 설립한 어린이도서관으로 1977년에 잠실어린이도서관, 1978년에 유진어린이도서관이 있었다. 시민단체가 설립한 어린이도서관으로 1982년에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있었고 1990년대 법인이 설립한 인표어린이도서관 22개관이 있었으며 2000년을 전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설립한 어린이도서관이 100여개관에 이르렀다. 공공영역에서 설립한 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2001년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 등으로 공공영역의 어린이도서관 설립은 매우 저조하였다.

성장기에 설립된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 민간 어린이도서관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민간영역의 도서관운동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마을문고, 1980년대의 도서원, 1990년대의 주민도서실, 작은도서관 등과 차이가 있었다. 도서관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마을문고, 도서원, 주민도서실 등이 사회운동가들이라면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책, 어린이 독서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성(주부)에 의한 도서관 설립과 운영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어린이를 도서관의 주요 이용대상으로 상정하고 어린이 책을 주로 갖추어

www.kci.go.kr

열람과 대출, 어린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성장기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보다는 민간이, 사회운동가보다는 여성이, 성인보다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이 시기 어린이도서관은 민간의 개별적인 설립으로 주도세력은 형성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 이들은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과 정보교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해 1998년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현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를 조직하였다.

4.2.3 성장기의 특징

어린이도서관의 준비기에는 어린이도서관 인식이 낮았으며 어린이 독자와 자료가 부족하였고 어린이도서관도 설립되지 못하였다. 성장기는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 민간의 작은도서관운동, 어린이 책의 성장,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 출현 등의 영향으로 개인과 단체, 공공에 의하여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시기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인식하고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민간영역에서 먼저 발생하였는데 1977년 잠실어린이도서관, 1978년 유진어린이도서관, 1982년 마을어린이도서관이 있었고 1990년대 인표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40여개관이 있었으며 2000년대 초반 개인 및 단체 등이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어린이작은도서관을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공공영역에서는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2001년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둘째,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민간영역이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기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이 공공은 2개관에 그치고 있으며 개인과 단체에 의하여 주로 설립되었으며 이전 시기에 진행된 문고와 작은도서관과 차별화를 드러내면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였다. 특히 기업의 재단과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인 (사)어린이도서연구회의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들이 1990년대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에 참여하면서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설립한 어린이도서관이 2000년대 초반 100여개로 증가하였다.

셋째, 어린이도서관 관련 단체가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민간영역에서 설립되기 시작한 어린이도서관이 도서관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현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를 결성하였고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하여 조직화를 시작하였다.

넷째, 어린이 독서운동 관련 단체가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어린이 독서운동 단체인 (사)어린이도서연구회가 1980년 등장하여 어린이 독서문화 운동을 진행하였고 1990년대에는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참여하여 성장기 어린이 책의 발전과 어린이 독서,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2년까지의 어린이도서관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분

www.kci.go.kr

석하여 어린이도서관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특징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적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사용하였다.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전개 과정은 연대순과 일반사적인 시대구분을 이용하여 서술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준비기, 성장기로 구분하였다. 어린이도서관의 준비기와 성장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6년까지는 어린이도서관의 준비기이다. 이 시기는 1945년 식민지로부터 해방과 군정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경쟁이 심화되는 상태였다. 공공도서관의 수는 매우 부족하였으며 출판은 교과서와 오락물, 전집류 등이 대부분이었고 독서에 대한 인식이 낮아 어린이 독서자료 확보와 어린이 독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장려활동을 진행하였다. 준비기에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은 없었으나 국립도서관을 포함한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실을 설치하고 열람서비스와 독서교실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고 있었다.

둘째, 1977년부터 2002년까지는 어린이도서관의 성장기이다. 이 시기에 어린이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처음 등장하였다. 민간영역에서 1977년 잠실어린이도서관이 등장하였고, 공공영역에서 1979년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시민사회 성장, 작은도서관운동, 어린이 책 성장, 어린이 독서운동과 어린이도서관 관련 단체가 등장하면서 어린이와 어린이 책, 독서문화, 어린이도서관 등에 관심이 고조 되었으며 개인과 단체, 공공이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였다. 성장기 어린이도서관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을 자각한 개인, 법인, 단체에 의하여 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을 주도할 만한 세력의 형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어린이를 주요 이용대상으로 설정하고, 어린이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조직하여,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처음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후 2000년대 중반 어린이도서관이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한국에서 어린이도서관이 처음 설립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고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임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의 부족함을 해소하고 독서환경 조성과 문화공간에 대한 갈증과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의 헌신과 열정, 시민단체의 지역 사회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종교단체의 목회 차원 등 다양한 이유에서 설립되었다. 이러한 민간의 활동은 언론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03년 기적의 도서관을 탄생시켰다.

한국에서 어린이도서관의 설립과 성장은 단순하지 않았다.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분화, 어린이 책과 출판의 성장, 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무르익어야 했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요구, 어린이도서관을 설립하려는 민간의 노력과 선도적 활동 등이 있어 가능했다. 이에 후속 연구로 2003년

www.kci.go.kr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하여 이후 어린이도서관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회적 환경 등을 고찰하여 한국 어린이도서관의 발전과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도서관의 지지자로서 어린이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영향을 준 사람들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김세익. 1992.『도서・인쇄・도서관사』. 서울: 아세아문화사.
[2] 김수철. 2002.『한국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3] 김종성. 2011.『어린이서비스론』. 대구: 태일사.
[4] 김종성. 2000.『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5] 김포옥. 1991.『광복이후 한국 공공도서관사 연구: 일제하 공공도서관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6] 김효정. 2000. 국립 어린이 도서관 설립의 문제.『인문학연구』, 29: 129-168.
[7] 대한출판문화협회. 1961.『한국출판연감』.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8]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1980.『어린이와 독서』. 서울: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
[9]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1980.『종로도서관60년사: 1920~1980』. 서울: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10] 오혁진. 2010. 사회교육의 일반적 발달단계에 기초한 한국 사회교육사 시대구분 연구.『평생교육학연구』, 16(4): 81-105.
[11] 육근해. 2008.『한국의 점자도서관 발전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2] 윤금선. 2009. 민족적 관점에서 본 경성도서관의 사회교육과 독서운동 실태 및 의의.『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1-33.
[13] 이명옥. 2007. 어린이사서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방법모색: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중심으로.『국립어린청소년도서관 1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발표집』.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4] 이연옥. 2005. 현 단계 어린이도서관운동의 내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309-327.
[15] 이연옥. 2001.『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6] 이춘희. 1989. 근대 한국 도서관사 연구: 개화기에 있어서 근대 도서관 사상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도서관학』, 16: 71-110.
[17] 전영순. 2003. 민간어린이도서관 현황.『도서관문화』, 44(2): 35-38.
[18] 정동열, 조찬식. 2007.『문헌정보학 조사연구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www.kci.go.kr

[19] 한국도서관협회. 1979.『한국도서관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 한국도서관협회. 1963. 도서관법 전문.『도협월보』, 4(7): 2-5.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1] 한국도서관협회. 1965. 도서관법 시행령 전문.『도협월보』, 6(2): 2-3.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2] 한국도서관협회 기준분과위원회(편). 1981.『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3]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편). 2003.『한국도서관기준(2003년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4]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편람 편찬위원회(편). 2009.『도서관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5] 한국도서관협회 편. 2010.『문헌정보학 용어사전(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6] 한국출판연구소. 2002.『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7]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2.『BOOKPEDeM 01』.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The ALA Giossary of Library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9] Kevane, M. and Sundstrom, W. A. 2014.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1870-1930: A Quantitative Assessment. *Information & Culture*, 49(2): 117-144.
[30] Koontz, C. and Gubbin, B. (편). 2013. 장혜란 역.『IFLA 공공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31] Jagusch, S. A. 1990. *First am ong equals: Caroline M. Hewins and Anne C. Moore. Foundations o f library work with children.* Ph.D.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32] Lopez, Manuel D. 1976. Children's Libraries: Nineteenth Century American Origins. *Journal of Library History*, 11(4): 316-342.
[33] Powell, R. R. 1996. 홍현진 역.『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론』.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34] Thomas, F. H. 1982. *The genesis of children's services in the american public library: 1875-1906.* Ph.D.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
[35] 前田博子, 吉川祐加. 2011. 子ども図書館の設置現況と複合化に關する實態調査.『豊田工業高等專門學校研究紀要』, 44: 95-100.
[36] 赤星隆子. 2007.『兒童圖書館の誕生』. 東京: 理想社.
[37] 坂內夏子. 2011. 兒童圖書館 設立の 背景.『早稻田大學教育學部學術研究』, 50: 15-33.
[38] IFLA. 2001. *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UNESCO guideline for development.* IFLA, Section of Public Libraries. [online] [cited 2019. 6. 18.] 〈http://www.ifla.org/〉
[39] IFLA. 2003. *Guidelines for children's libraries services.* IFLA,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 [online] [cited 2019. 6. 18.] 〈http://www.ifla.org/〉
[40]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online] [cited 2019. 8. 10.] 〈https://newslibrary.naver.com/〉

www.kci.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im, Se-ik. 1992. *Book · Printing · Library.* Seoul: Asia Culture Company.

[2] Kim, Soo-Chul. 2002. *A Study on the Korean Civil Movement.* Ph.D. Dis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3] Kim, Jong-sung. 2011.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Daegu: Taeilsa.

[4] Kim, Jong-sung. 2000. *A Study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al Stages of the School Library Movement in Korea.*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5] Kim, Po-Ok. 1991. *A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Public Libraries After the Korean Liberation Day.*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Graduate School, Sung Kyun Kwan University.

[6] Kim, Hyo-Jeong. 2000. "A Study on Building of National Children's Library on Korea." *Journal of Humanities*, 29: 129-168.

[7]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1961. *Korean Publication Yearbook.* Seoul: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8]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hildren's Public Library. 1980. *Children and Reading.*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hildren's Public Library.

[9]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Jongno Public Library. 1980. *Jongno Public Library 60 Year History: 1920~1980.* Seou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Jongno Public Library.

[10] Oh, Hyuk Jin. 2010. "Study on the periodization of Korean history of adult education on the basis of internal developmental stage of adult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6(4): 81-105.

[11] Youk, Keun-Hae. 2008. *A Study on the Braille Library Development in Korea.*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12] Yeun, Keum-Sun. 2009. "A Study on Social Education, Reading Movement and Meaning of the Gyeongseong Library Which Observe From Ethnic Viewpoint."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1-33.

[13] Lee, Myoung-Ok. 2007. "Finding a Solution to Strengthen the Children's Librarian's Professionalism: Focusing on Children's Libraries." *International Symposium, The 1st Anniversary of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www.kci.go.kr

Adults.

[14] Lee, Yeon-Ok. 2005. "A study on the Children Library Movement of the Present."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309-327.

[15] Lee, Yeon-Ok. 2001. *A Study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ublic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Ph.D. diss.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16] Lee, Choon Hee. 1989. "A Study on the History of Modern Library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Formation of Modern Library Though in the Late Yi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6: 71-110.

[17] Jeon, Yeong-Sun. 2003. *DOSEOGUANMUNHWA*, 44(2): 35-38.

[18] Jeong, Dong-Youl and Cho, Chan-Sik. 2007. *Research Metho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79. *Korean Library Statistic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3. *Dohyup Wallbo*, 4(7): 2-5.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1]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5. *Dohyup Wallbo*, 6(2): 2-3.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2] Korean Library Standards committee ed. 1981.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3] Korean Library Standards Special committee ed. 2003. *Korean Library Standards(2003)*.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4] Korean Library Association Library Handbook Compilation Committee ed. 2009. *Library Hand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5] Korean Library Association ed. 2010.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26]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ed. 2002. *The national reading fact-finding survey*.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7]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2002. *BOOKPEDeM 01*. Seoul: Korean Publishing Marketing Research Institute.

[30] Koontz, C. and Gubbin, B. ed. Trans lated by Chang, Hye Rhan. 2013.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2nd, completely revised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33] Powell, R. R. 1996. Trans lated by Hong, Hyun Jin. *Research methods for librarianship*. Seoul: Kumi Trading Co.,Ltd. (Publishing Department).

[40] Naver newslibrary [online] [cited 2019. 8. 10.] 〈https://newslibrary.naver.com/〉

www.kci.go.kr

www.kci.go.kr